

세계정당대학의 원장인 김포동으로 상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광명IC 구간 광복 동원도 산동 (당첨후합성IC 영수증 프린트 게시)
- 우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정선제 실시
- 예약: www.hpdyndy.com 0801-320-7700



13일 베이징공과대학 체육관에서 벌어진 배드민턴 여자복식 4강전에서 한국 이경원-이효정(오른쪽)조가 일본 마에다-스에츠나조에 스매싱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李 듀엣’ 만리장성 넘는다

경원 효정



배드민턴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이경원-이효정(이상 삼선정기) 조가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결승에 진출했다. 세계랭킹 4위인 이경원-이효정 조는 13일 베이징공과대학 체육관에서 벌어진 배드민턴 여자복식 준결승에서 일본의 마에다-스에츠나조(랭킹 8위)를 2-0(22-20 21-15)으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여자복식이 올림픽 결승에 오른 것은 1996년 애틀랜타 대회때 길영아-장혜옥 이후 12년만이다.

내일 중국과 대망의 결승

아이 조는 8강에서 세계랭킹 1위인 중국의 양웨이-장지웬을 꺾어 이번 대회 최대 파란을 일으킨 일본의 마에다-스에츠나 조를 맞아 초반 고전을 면치 못했다. 1세트에만 부심이 서비스 폴트를 5개나 지적해 고스란히 5점을 까먹은 아이 조는 특히 18-18로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부심이 또 폴트를 선언하자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8-20으로 뒤져 패색이 짙었으나 이

효정의 스매싱과 이경원의 좌우 연타가 작렬하면서 한꺼번에 4점을 몰아쳐 22-20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기세가 오른 아이 조는 2세트에서도 부심이 폴트를 한 차례 선언했지만 안정된 기량으로 경기를 주도한 끝에 21-15로 승부를 마무리했다. 이경원-이효정 조는 중국의 웨이이리-장아옌 조와 두징-유양 조의 승자와 15일 대망의 결승전을 갖는다. 남자복식에서는 ‘비밀병기’ 이재진(밀양시청)-황지만(강남구청)조 역시 일본의 오쓰카-마쓰다조(랭킹 12위)를 2-1(21-12 18-21 21-9)로 물리치고 4강에 올랐다.



양궁

‘名弓 3총사’ 男 개인전 16강행

올림픽 남자 개인전 첫 금메달 사냥에 나선 태극궁사들이 나란히 16강에 올랐다. 임동현(22·한국체대)은 13일 올림픽그린양궁장에서 열린 2008베이징올림픽 양궁 남

자전 32강전에서 리처드 존슨(미국)을 115-106(120점 만점)으로 꺾었다. 64강에서 알리 샬렐(카타르)에게 1연드 25-26으로 끌려가다 2연드 역전에 성공하며 108-103으로 이긴 임동현은 32강에선 1연드부터 2점차(29-27)로 앞선 뒤 역전을 허

용하지 않고 낙승을 거뒀다. 이장환(26·부산중공업)은 32강에서 터키 선수를 117-109로 물리쳤다. 117점은 오교문(호주 감독)이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에서 작성한 올림픽기록(115점)을 2점 경신한 점수다. 박경모(33·인천계양구청)도 커우첸웨이(대만)를 111-110으로 제치고 16강에 올랐다.



13일 베이징 국가올림픽체육센터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여자핸드볼 B조 예선 한국과 스웨덴 전에서 오영란이 선방하고 있다. 한국이 31-23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거미손’ 오영란 조 선두 견인



핸드볼

한국 여자핸드볼이 스웨덴을 잡고 2연승으로 8강 진출을 사실상 확정해 ‘금빛 우생순(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에 한 걸음 다가섰다.

임영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3일 낮 베이징 올림픽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펼쳐진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 핸드볼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스웨덴을 31-23, 8점 차로 대파했다.

지난 9일 세계 최강 러시아와 29-29로 비기고 11일 2차전에서 세계 랭킹 3위 독일을 30-20으로 완파한 한국은 2승1무를 기록, 러시아(2승1무)와 동률을 이뤘고 골득실(한국 +18, 러시아 +13)에서 앞서 B조 선두로 올라섰다.

한국이 15일 브라질, 17일 헝가리까지 남은 2경기를 모두 지고 5위 브라질(1무2패, 골득실 -11)이 모두 이길 경우 양팀이 골득실을 따져 4위와 5위를 가리기 때문에

‘강호’ 스웨덴 31-23 대파

한국은 8강 진출을 위한 최소한 조 4위에 오를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한국은 초반 스웨덴의 키와 높이를 이겨 내지 못하고 센터백 요하나 알름의 빠른 돌파와 외곽 슈팅을 막지 못해 고전했다. 앞선 데 달린 격으로 패스 미스로 계속 터져 나왔다.

전반 12분 5-9로 4점 차까지 뒤진 한국은 상대 피벗 사라 홀름그렌이 2분 퇴장 당하면서부터 추격의 실마리를 찾았다. 홍정호와 안정화가 수비 빈틈을 노려 득점포를 폭발시켰고 16분에는 문필희가 9-9 동점을 만들더니 17분에는 박정희가 측면에서 뛰어오르며 골문을 열어 10-9로 처음 역전에 성공했다.

18분 10-10 동점에서 스웨덴 피벗 홀름그렌이 다시 퇴장당했고, 한국은 박정희와 홍정호가 4골을 합작하며 순식간에 14-10

으로 달아났다. 18-13으로 전반을 마친 한국은 후반에도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후반 8분 오성욱과 교체되며 공격에 가담한 무안 백재고 출신 막내 김은아는 스웨덴의 중앙 수비벽을 재빠른 페인트 동작으로 허물며 골을 터트리며 상대 반칙으로 7m 던지기를 유도해내며 필살 넣었다. 수문장 오영란도 상대의 결정적인 슈팅을 수차례 선방해 활력을 불어넣었다. 한국은 후반 13분 23-16, 7점 차로 앞서며 승리를 예감했다.

한국은 경기 종료를 7분 가량 남기고 25-21, 4점 차로 추격당했고 4분 전에는 최임정이 7m 던지기에서 스웨덴 골키퍼 열골을 맞추는 바람에 레드카드를 받으며 코트에서 쫓겨나기도 했지만 레프트윙 안정화와 라이트윙 박정희가 승리를 띄우는 슈팅을 꽂으며 낙승했다.

3패로 탈락 위기에 몰린 스웨덴은 경기 막판 골키퍼까지 공격에 가담시켰지만 오히려 한국 수문장 오영란이 빈 골대로 긴 슈팅을 던져 골을 넣는 희한한 장면까지 만들어냈다. /연합뉴스



수영(경영)



박태환 1,500m도 일낸다

내일 예선... 17일 결승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사진)의 거침없는 질주는 계속된다. 2008 베이징올림픽 자유형 400m에서 한국 수영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건 뒤 자유형 200m 은메달까지 추가하며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박태환은 자유형 1,500m에서 다시 한번 파란을 준비하고 있다. 박태환은 15일 저녁 중국 베이징 국가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리는 수영 남자 자유형 1,500m 예선을 앞두고 있다. 이번 올림픽에서 박태환의 마지막 종목이다. 예선은 모두 37명이 출전해 5개 조로 나뉘어 치러진다. 박태환은 3조 6레인에 배정받았다. 라이블로 꺾여 왔던 4레인 유리 프리틀루코프(러시아)와 함께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 자유형 1,500m는 15일 저녁 예선이 끝나면 16일 하루는 쉬 뒤 17일 오전에 결승이 진행된다.

펠프스 5관왕... 통산 금 11개

올림픽 개인 최다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23·미국·사진)가 하루에 2개의 금메달을 수확, 이번 대회 5관왕에 오르면서 통산 금메달 수를 11개로 늘렸다. 펠프스는 13일 오전 베이징 국가아쿠아틱센터에서 펼쳐진 2008 베이징올림픽 수영 남자 접영 200m 결승에서 1분 52초03에 가장 빨리 물살을 갈라 자신이 작년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운 1분

52초09의 세계 기록을 0.06초 줄이며 금메달을 추가했다. 펠프스는 이어진 남자 계영 800m 결승에서도 우승했다. 그동안 개인의 역대 통산 최다 금메달은 9개로 펠프스는 전날 자유형 200m 금메달을 따면서 체코 라리사 라티나(옛 소련), 육상 파보 누르미(핀란드), 수영 마크 스피츠, 육상 칼 루이스(미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이날 이를 훌쩍 넘어가면서 올림픽 역사를 새로 창조했다.